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순천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식 설치 추진

84개소 240면...장애인 편의 증진·불법주차 예방

“인식 개선 계기 기대...사회적 약자 배려 전국 확대”

순천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순천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식(싸인블)’ 설치를 시작했다.

최근 시청사 민원인 주차장 설치를 시작으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84개소 240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순천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식’을 8월말까지 설치하고 순천시 관내 공공기

관, 집합건물, 공동주택 등은 우선 신청을 받아 순천시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식’ 설치 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야간이나 원거리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의 식별성을 높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순천시는 장애인·노인·시민 등 모두



가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

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식’은 지난 7월 시민 설문을 통해 선정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표식은 경고·금지를 의미하는 적색과 승고·정직을 의미하는 백색을 사용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식별성을 높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천에서 시작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암 금정 뱅뱅이골에서 무더위 날렸어요”

영암군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대상 ‘여름아 부탁해’ 물놀이



영암군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9일 금정면 뱅뱅이골에서 주간보호실 중증장애인 및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늦더위를 이겨내는 ‘여름아 부탁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증장애인들이 1년 중 유일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이용자들의 삶에 정서적 활력을 불어넣고 한여름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물놀이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들과 손발을 맞추고 하나로 어우러져 무더운 여름을 날리는 즐거운 물놀이 시간을 즐겼으며, 함께한 한 자원봉사자는 “장애인들이 평소 움직이는 것보다 물속에서 더 활기찬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다.”며 “모두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 하루가 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영암군장애인복지관은 중증장애인의 감각 발달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매칭한 여름 물놀이를 매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태안군, 모든 시각장애인 ‘점자여권’ 발급 한다

충남 태안군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행 여권법은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돼 있어 현재 조항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군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기존 4~6등급 시각장애인 등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성명·여권번호·발급일·기간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가 점자로 기록돼 있다.

‘점자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1번 창구를 찾아 여권발급신청서와 시각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권의 신규 또는 재발급 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발급된 여권에 점자 정보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점자여권 발급 대상 확대를 적극 홍보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리스타 꿈 이룬다’ 장애인 6명 전주맛춤훈련센터 입학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맛춤훈련센터에서 ‘바리스타 맞춤훈련 입학식’이 개최됐다.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맛춤훈련센터(센터장 이상화·이하 훈련센터)에서 ‘바리스타 맞춤훈련 입학식’이 개최됐다.

장애인고용증진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바리스타 교육에는 시각 및 지체장애인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커피머신 운용 등 바리스타 분야에서 요구되는 직무에 관련된 훈련을 받게 된다. 또 직장예절과 의사소통, 대인관계, 사회성 훈련 등의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인성교양훈련도 받는다.

교육을 마친 훈련생들의 취업은 전북대학교가 맡는다.

이상화 센터장은 “바리스타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음료서비스 사업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